

자료제공 : 2024. 1. 29.(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행정국 총무과

총무과장

조성호

2133-5605

서무팀장

정한섭

2133-5607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매수 : 4매

담 당 자

김두영

2133-5611

오세훈 시장 “공감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추진”... 끊임없이 소통할 것

- 29일(월) 오후 2시, 직원 350여 명과 ‘2024년 신년 직원정례조례’ 개최
- ‘사랑이 넘치는 동행·매력 특별시 만들기’ 특강... 시민 만족 넘어 감동하는 행정 추진 당부
-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 추진해야 신뢰받을 수 있어... 그 시작은 관심에서 비롯
- 시민입장에서 ‘미리 생각하고, 다시 생각하고, 두루 생각하는’ 행정마인드로 탁월한 서울 완성
- 딱딱한 행사에서 벗어나 세대공감 퀴즈프로그램도 진행, 엄근진 아닌 편한 분위기

오세훈 시장이 갑진년(甲辰年) 새해 첫 직원정례조례에서 시민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신뢰받은 서울시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.

서울시는 29일(월) 14시 서울시청(8층 다목적홀)에서 시(市) 본청, 사업소 등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2024년 직원정례조례」를 개최했다.

- 올해 정례조례는 ‘매력 서울을 향한 값진 동행’을 부제로 오 시장의 특강을 비롯해 시장단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자유롭고 편(Fun)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.

- 먼저 오 시장은 ‘사랑이 넘치는 동행·매력 특별시 만들기’를 주제로 약 20분간 직원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.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함께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, 그 첫 단계는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. 이어 끊임없는 생각과 소통, 새로운 시도와 교감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.

- 아울러 지난해 정례조례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자는 ‘창의행정’을 강조했다는데, 실제로 ’22년 149건에 불과했던 창의제안이 지난해 10배 이상 늘어난 1,577건에 이르렀다며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준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.

-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‘미리 생각하고, 다시 생각하고, 두루 생각하는’ 세 가지 행정마인드가 감동·공감의 핵심이라며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, 지하철 15분 이내 재탑승, 동행식당·온기창고, 기후동행카드 등의 사업을 함께 살펴보며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이면 탁월한 서울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- 특강에 이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‘도전, 서울 골든벨’이 진행됐다. 오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서울시정과 그 외 사회적 이슈에 관한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총 33개 팀(330명)이 참여했다.
- 도전 골든벨 사회는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0월 선발된 1대 서울시 공무원 유튜버인 서튜버 정규현 주무관이 맡아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.

□ 행사일정

구분		세부내용	비고
개회전	13:50~14:00	식전공연(현악4중주)	
1부	14:00~14:03	개회 및 국민의례	사회자
	14:03~14:08	2024년 신년영상 상영	사회자
	14:08~14:28	서울시장 특강	서울시장
2부	14:28~14:48	도전, 서울 골든벨	서튜버
	14:48~14:58	시상	서울시장
	14:58~15:00	폐회	사회자

□ 행사사진



오세훈 서울시장 강연①



오세훈 서울시장 강연②



도전, 서울 골든벨 참여①



도전, 서울 골든벨 참여②



도전, 서울골든벨 진행



시상